

조선시대 화가들의 창조성 강조해 사회사로서의 미술사 연구 경계

《한국 회화사 연구》



안휘준 지음
시공사/B5변형/862면/35,000원

미국 하버드대에서 회화사를 전공하고 <안견의 몽유도원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후, 27년 동안 26권의 저서와 105편의 논문, 그리고 361건의 서평, 논설, 전서평, 수필 등을 쓴 60세의 대학교수라면 우선 그의 학문적 열정과 씩 없는 글쓰기에 놀랄 것이다.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의 안휘준 교수는 그렇게 다부진 학자다. 도무지 설 줄도 모르고 지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꼭 30년 동안 옆에서 그의 학문연구와 사회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필자는 그의 이런 모습에 기가 질릴 때가 많다.

이런 안휘준 교수가 환갑을 맞은 올해 무려 3권의 저서(모두 합하면 1천730쪽이나 된다)를 출간했다. 참으로 놀랍고 두렵고 존경스러운 일이다. 인생길 한바퀴 돈 기념이 이렇다면 가히 크게 기록할 만한 업적이 될 것이다.

《한국 회화의 이해》 《한국의 미술과 문화》 《한국 회화사 연구》 등의 순서로 출간된 이들 가운데 여기서는 《한국회화사 연구》에 대해 서평과 단상을 쓰고자 한다.

이 책 역시 앞의 두 책처럼 지금까지 발표했던 논문 가운데 28편을 뽑아 고치고 다듬어 엮은

것이다. 평소애 독심과 고집이 센 저자답게 이 저서에서도 자기의 주장을 시종일관했다. 즉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각 시대별 화단의 여러가지 경향과 양상, 화풍의 특징과 변화, 중국과 일본의 회화교섭 등의 양식사적 현상을 규명하고 그 회화사적 골격을 파악해 복원했다.

또 한국의 회화가 이미 삼국시대부터 한국적 화풍을 뚜렷하게 형성했고(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필자와 약간의 견해차가 있다. 필자는 창조성의 문제에서 한국회화의 모방성을 도외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전통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규명하고 주장했다(이 부분에서도 필자는 한국회화의 자각과 독립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였다고 본다).

안교수는 한국학자의 회화사연구방법론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다.

그는 언제나 국수적이라 할 정도로 우리 회화의 자주성과 한국성을 강조하면서 화풍과 양식은 사상에 의해 결정되고 창조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 대한 모화사대사상이 우리 회화, 특히 조선시대 회화의 화풍과 양식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화가들의 창조성과 개별성을 강조한다.

이런 결과로 산수화의 준법(準法)에서도 중국의 20여종의 준법에도 없는 단선점준(短線點準)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쓰고 있다(필자는 단선점이면 단선점이요, 단선준이면 단선준이지 무슨 단선점준이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또 안교수는 회화사연구에서 작품 외의 여러 가지 사상적, 정치적, 경제적 여건 등에 매달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사로서의 미술사는 마땅치 않다는 견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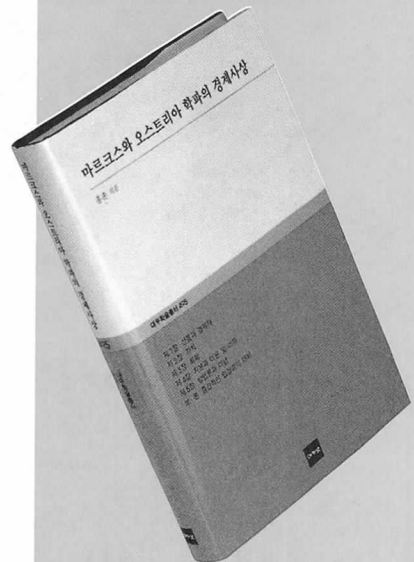
어떻든 학계에 쾌거를 이룬 저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짧은 서평과 생각을 접는다.

허영환

성신여대 동양학과 교수. 저서 《동양화일천년》 《동양미의 탐구》 외.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과학성 증명해 풍부한 원전 섭렵 돋보여

《마르크스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사상》



홍훈 지음
이카넷/A5신/426면/20,000원

이 책은 경제학의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자세하게 파헤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마르크스는 스미드와 리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의 이론과 거의 비슷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책은 마르크스가 고전파 경제학자와는 전혀 다른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최근의 신자유주의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신고전학파(제본스, 왈라스, 프리드만)와 멩거, 하이에크 등 오스트리아학파를 서로 동일시한다. 그러나 이 책은 오스트리아 학파는 신고전학파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철학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와 오스트리아 학파를 비교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에 따르면 객관적 노동가치설을 토대로 화폐·자본·이윤·이자를 가장 이론적으로 해명한 사람은 마르크스고, 주관적 효용가치설을 토대로 화폐·자본·이윤·이자를 가장 이론적으로 해명한 학파가 오스트리아 학파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론적 틀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타도하기 원했고, 오스트리아 학파는 자유방임의 시장경제가 인류

최적의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따라서 마르크스와 오스트리아 학파를 상품(제1장), 가치(제2장), 화폐(제3장), 자본과 이윤 및 이자(제4장), 방법론과 이념(제5장)으로 나눠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의외로 간단하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이론은 노동가치설에 따라 전개하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은 효용가치설에 따라 전개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마르크스는 계급을 중심에 두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채택했고, 오스트리아 학파는 개인을 중심에 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채택했지만, 오히려 어려운 부분은 마르크스를 스미드·리카도와 비교하는 것이고, 오스트리아 학파를 제본스·왈라스와 비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미드와 리카도, 그리고 제본스와 왈라스는 이론적으로 수미일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기의 특기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을 공부하다가 마르크스를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르크스를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 틀 속에 넣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작업은 오직 마르크스만을 연구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작업이 재미있는 것은 주류 경제학이 판을 치는 우리 경제학계의 연구자들이 마르크스에 관심을 갖도록 유인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론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마르크스 이론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만큼 과학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마르크스, 오스트리아 학파, 고전학과, 신고전학과를 이데올로기의 측면이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 맡기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 선무당 같은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책은 잘 보여 준다. 특히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전을 인용하면서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런 문헌 섭렵 노력은 지금의 경제학도들에게 매우 소중한 귀감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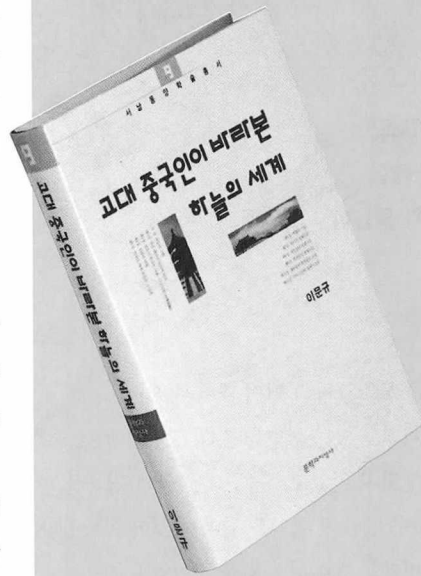
김수행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저서 《21세기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원론》 《경제변동론》 《자본론 연구 1》 외.

서평

고대 중국인의 천문의식 밝혀 서양학자들의 이해방식에 이의제기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이문규 지음
문학과지성사/A5신/400면/14,000원

이 책은 한국인에 의해 집필된 최초의 중국과학사다. 그동안 니덤, 야부유치 기요시, 야마다 게이이치 등 저명한 중국과학사 학자들의 저서가 국내에서 번역·출간된 적이 있었지만 한국의 학자에 의해서 집필된 저서는 없었다. 이문규 박사의 이 책은 국내에서 씌어진 최초의 중국과학사 연구서라는 것만으로도 매우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이 책이 다루는 대상은 고대 중국, 구체적으로는 한대(漢代)의 천문학이다. 그러나 저자는 책에서 다뤘던 것을 단지 고대의 천문학이라 하지 않고 고대 중국인들이 물리적인 대상으로서 하늘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천문학’적인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방식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1·2·3부에서 각각 하나씩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번째는 ‘천문’(天文)으로 하늘의 세계를 묘사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삶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분야는 종래 점성술이라 불리며 학자들에 의해서 소홀히 다루졌고 간혹 오해되기도 했던 분야였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이 ‘천문’을 중국인들의 하늘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는 ‘역법’(曆法)으로, 하늘과 천체들의 운행을 ‘수’(數)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이다. 세번째는 개천설과 혼천설 등의 ‘천체구조론’으로 하늘의 모양이나 하늘과 땅의 구조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사변적인 논의를 말한다. 저자는 이 3부에서 개천설을 1차와 2차로 나눠 파악했던 종래의 이해를 부정하는 등 그동안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았다.

이런 고찰을 통해 저자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중국인들의 하늘에 대한 ‘천문학’적인 지식이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잡게 된 것은 한대였으며, 그 과정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 지배체제의 출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대의 천문학적 지식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속에서 정치 집단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표출하고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중국인들의 ‘천문학’적 지식은 서양의 천문학사에서 보듯 상당히 추상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사변적인 작업의 결과기도 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이 저서의 숨겨진 성과라면 고대 중국인들의 하늘에 대한 이해 방식을 밝혀 준 것뿐 아니라 그런 ‘천문학’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즉 중국 천문학사의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고 본다. 종래 학자들처럼 천문학 ‘내용’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것이 표현되는 ‘양식’에 대한 고찰이 고대 중국인들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니덤과 야부유치와 같은 대학자들이 중국인들의 하늘에 대한 이해 방식을 왜곡시킨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했다면 지나친 찬사일까?

단순한 표면이 아니라 깊이의 변화로 디지털 시대를 읽어내고자 하는, 그리고 지금이 아닌 더 먼 미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문중앙

한국과학사학회 학술간사·전북대 강사. 저서 《조선 후기 수리학과 수리달론》, 논문 《18세기 조선 실학자의 자연 지식의 성격》 외.